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추진부서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031-729-2932

개선배경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아교육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수료)은 동일하나, 하반기 출생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월 말, 유치원 교사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정년)이 이원화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이 재원아의 졸업(수료)을 2개월 남기고 교체되어 불안정한 보육환경 조성

개선내용



-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담임교사와 졸업(수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일자 변경: 12월 → 다음해 2월 (유치원 교사와 동일)



개선 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개선 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월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추진과정



- '22. 9.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건의
- '22.10.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답변 → 중장기 검토
- '23. 3. 『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시행(인건비 지원 기준) 및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재답변 → 수용

개선효과



- 반 편성 및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전국 시군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산 · 적용

* 유보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김말희 ☎ 031-729-2932

2004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은 불합리했습니다. 어린이집 학기는 매년 3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끝나지만, 정년으로 출생 월이 7월에서 12월까지인 보육교직원은 12월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으로 동일하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은 달랐기에 이원화되어 있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및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노력 끝에, 지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일자가 보육교직원의 출생일이 3월에서 8월까지의 출생자는 8월 말 기준으로, 9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의 출생자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린이집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공백없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동은 교사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교사는 책임감 있게 반 운영을, 보호자는 아이를 믿고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